

메일 상임활동가

6월 4일 이후 대통령이 바뀌고, 어딘가에서는 세상이 바뀐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곤 했습니다. 무언가 바뀌는 것들도 있겠지요. 대통령 말고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죽음이 곳곳에 다다랐습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죽고, 많은 노동자가 끼임, 추락, 맞음, 깔림, 중독, 폭발로 죽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때로 통계에서조차 지워지곤 합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굶어 죽고, 구호품을 배급받으러 갔다가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수탈로 동식물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고, 차별과 혐오는 불안과 우울로 소리 없이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대책위 활동과 아리셀 참사 1주기 추모제,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과 기자회견 등에 참여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30주년 국회토론회에서 반안트리 참사 증언을 하고, 지난 퇴진광장에서 힘 모았던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해소 회의에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현장 교육을 꾸준히 진행 중이고, 중대재해 대응 투쟁에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열릴 927 기후정의행진 준비도 막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노동안전교육, 현장연대, 산재 대응 활동 등은 7월에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찜통더위와 바쁜 나날 속에서도 선선한 그늘 같은 시간이 일터 독자님들께 때때로 주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연구소에는 3대 ‘운동’ 모임이 있는데요. 등산모임-눈떠보니 정상, 수영모임-SWIMKILSH, 달리기모임-한노보런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열치열의 정신으로 태양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등산모임이 출동합니다. 이번 산행은 하남 검단산으로 떠납니다. 함께 가실 분은 7월 20일 일요일 아침 9시에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 검단산역 3번 출구로 모여주세요. 한강 경치와 함께 서울을 한눈에 담아 볼 수 있겠습니다~!

